통합 6년제 약학대학

현행 2+4학년제 약학대학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6년제 약학대학. 37개 약학대학 중 34개 대학이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부터 통합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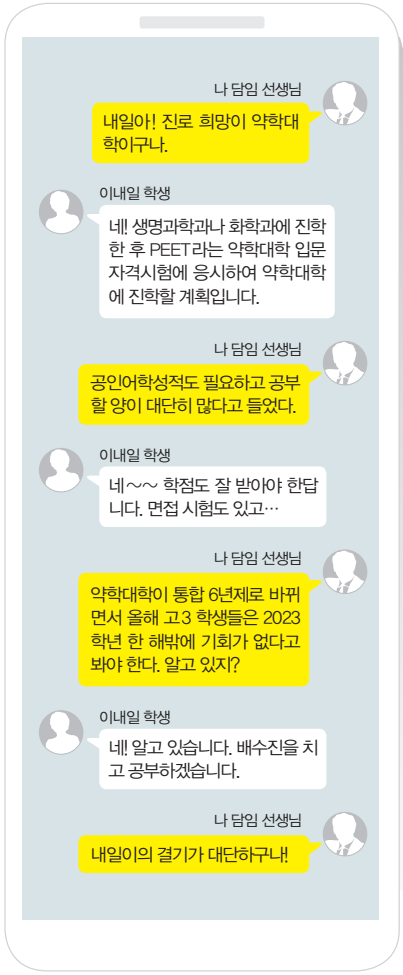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 약학대학은 2008학년 입시까지 4년 과정이었습니다. 2008학년 신입생이 4학년이 되던 해인 2011학년부터 학부 2년을 수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4년제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당시 20개였던 전국의 약학대학은 이후 35개로 확대됐고, 모집 인원도 1천203명에서 1천693명으로 490명 늘었습니다. 이후 전북대와 제주대가 약학대학을 신설하여 37개 약학대학의 정원은 1천7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 대입에서 대학은 통합 6년제와 2+4년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34개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를 선택했고 강원대와 부산대, 충남대 등 3개 대학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학년에 34개 약학대학에서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하여 1천8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권 대학 자연 계열 합격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입니다.

✚ 현재 고3 수험생은 약학대학에 진학하기가 불리합니다. 2023학년까지 2+4년제 약학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현재 고3 수험생도 학부 2년 수료 후 약학대학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면서 대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2+4년제의 2024학년 약학대학 모집 인원은 크게 감소합니다. 즉,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약학대학 입학 기회가 2023학년 한 번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약학대학도 수시 모집에서
의과대학 수준의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수능입니다.

생활 속 입시 용어

고졸 신입생 선발 마지막 해였던 2008학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약학대학 합격선은 자연 계열 학과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중앙대나 이화여대, 성균관대 약학과 합격선도 서울대 자연 계열 중위권 학과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약학과도 고려대나 한양대 공대 수준이었습니다. 2022학년 대학 입시에서도 약학대학 합격선은 수능 또는 내신 1.5~2.0등급의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학년에 연세대(송도) 고려대(세종) 한양대(ERICA) 등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학년 대입 시행 계획을 보면 32개 대학에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54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29명, 논술 전형으로 54명을 선발하고 정시 전형으로 69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주로 종합 전형으로, 지방 대학은 주로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학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수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학대학을 목표로 재수하는 수험생들을 감안한다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화 응용 사례

대부분의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34개 대학이 통합 6년제를 선택하여 2022학년부터 고졸(예정)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합니다. 2+4년제 약학대학은 학부 2년을 수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매년 PEET에 응시하는 인원은 1만5천여 명. 이들은 학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을 한 상태에서 약학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학과들은 너무 많은 학생이 PEET 준비로 빠져나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1천700명 이상이 합격하여 약학대학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인원은 재수 또는 삼수를 하면서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사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약학대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통합 6년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